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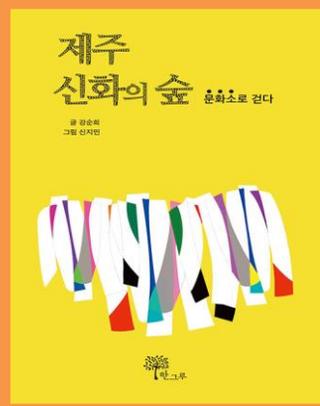
흥선권역 공립 작은도서관 2월 사서컬렉션

녹양동 작은도서관

사서 오다빈

이 달의 주제도서

소장도서관 : 녹양동 작은도서관



제주 신화의 꿈

강순희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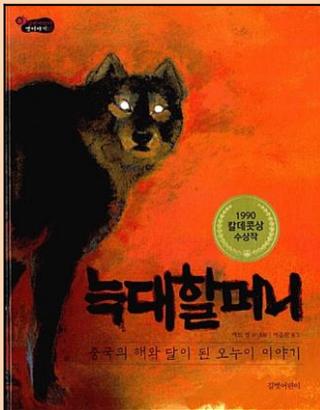
한그루

2022

청구기호

AD 219.11-7249x

같은 땅에 있어도 말이 다른데 하물며 바다를 두고 떨어진 섬은 또 얼마나 다를까요. 관광지로는 친숙한 제주도의, 제주도만의 신화에 대한 도서입니다. 제주도의 문화와 신화의 설명으로 다소 낯선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차분한 문장에 일상을 곁들여 전달합니다. 우리도 잘 몰랐던 우리의 신화를 접할 수 있는 도서입니다.



늑대 할머니

에드 영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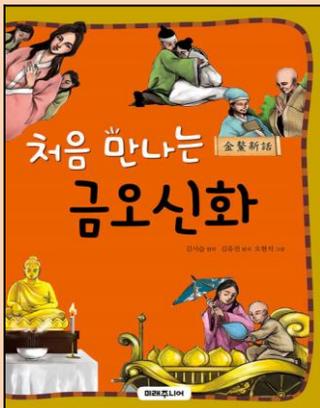
길벗어린이

2016

청구기호

JJ 388.112-0344L

우리에게는 해와 달이 된 오누이, 서양에는 중국판 빨간모자 이야기라는 부제목으로 소개된 중국의 옛날이야기입니다. 동양과 서양, 나라가 달라도 어딘가 익숙하고 비슷한 민담과 옛이야기가 통하는 건 결국 말과 문화가 다르더라도 같은 공감대를 형성할 수 있는 사람이 살기 때문이 아닐까 합니다. 다소 오싹하면서도 위기를 극복하는 세 자매의 이야기를 읽어보세요.



처음 만나는 금오신화

김시습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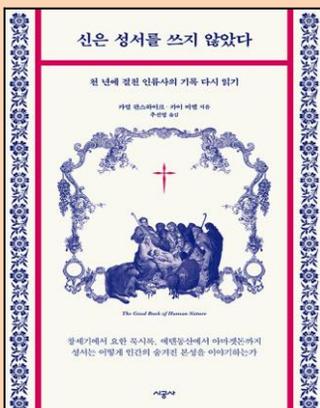
미래주니어

2019

청구기호

J 813.5-78167

신화라는 제목이지만 사실 우리나라 소설의 시초로 여러 이야기의 모티브가 되었습니다. 신비로운 존재가 나오지만 주인공은 인간세상을 살아가는 그 시대의 평범한 사람입니다. 그들이 선녀와 용왕을, 영라대왕을 만나며 어떻게 행동하고 또 어떤 선택을 했으며, 그 과정을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며 생각하는지. 옛 이야기는 이렇게 많은 해석을 남기며 지금까지 내려옵니다.



신은 성서를 쓰지 않았다

카를 판스하이크 지음

시공사

2022

청구기호

AD 233.08-7158x

인류가 가장 많이 읽은 종교서를 고르라면 기독교의 성서일 것입니다. 그 성서를 바탕으로 인류학적 내용을 설명하는 도서입니다. 예전에는 신화로, 지금은 역사로, 앞으로도 인류가 존재하는 한 꾸준히 하나의 기준점이 될 성서 안에 담긴 인류의 모습과, 그런 인류가 바라보는 신. 그리고 다시 인간으로 돌아오는 시선을 읽을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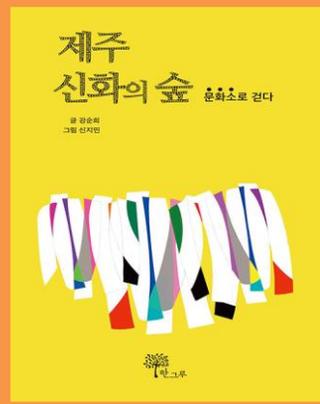
흥선권역 공립 작은도서관 2월 사서컬렉션

가능동 작은도서관

사서 이보연

이 달의 주제도서

소장도서관 : 녹양동 작은도서관



제주 신화의 꿈

강순희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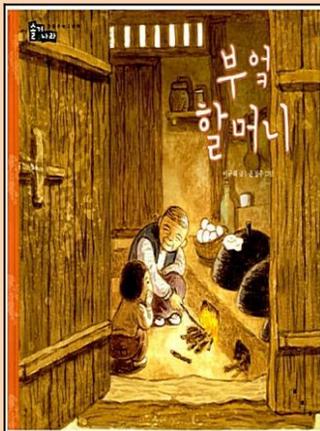
한그루

2022

청구기호

AD 219.11-7249x

같은 땅에 있어도 말이 다른데 하물며 바다를 두고 떨어진 섬은 또 얼마나 다를까요. 관광지로는 친숙한 제주도의, 제주도만의 신화에 대한 도서입니다. 제주도의 문화와 신화의 설명으로 다소 낯선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차분한 문장에 일상을 곁들여 전달합니다. 우리도 잘 몰랐던 우리의 신화를 접할 수 있는 도서입니다.



부엌 할머니

이규희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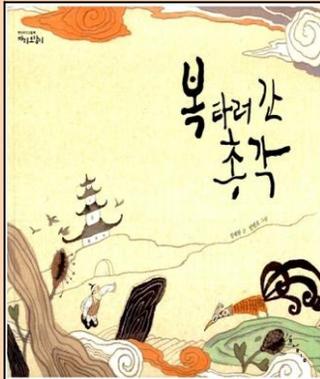
보림

2008

청구기호

JJ 380.911-0674b

봄이 할머니를 통해 조왕신에 대한 믿음과 조왕신을 섬기는 방법을 보여 줍니다. 봄이 할머니는 아침마다 깨끗한 물을 길어 그릇에 갈아 부으며 식구들이 잘 되기를 빌었고, 집안에 복이 든다 하여 부잣집 마당에서 흙을 훔쳐 오기도 합니다. 그리고 잊혀져 가는 조왕 신앙과 풍습을 알려 주고, 그 믿음에 깃든 따뜻한 가족 사랑을 전합니다.



복 타러 간 총각

정해왕 지음

보림

2009

청구기호

J 388.3-7522b

가난하고 복 없는 총각이 보다 나은 삶에 대한 의지로 '복을 타러 가야지.' 하고 마음먹으면서 시작되는 전래동화. 그리고 이타적인 삶, 상생의 삶이란 행복의 열쇠를 찾으면서 결국 인연을 만나고, 남들과 어울려 행복하게 사는 것으로 마무리됩니다.



일곱 번째 달

켄 리우 외 지음

알마

2021

청구기호

AD 808.3-9480

'신들의 고향'이라 불리는, 1만 8천여 개의 구비서사가 살아 숨 쉬는 신비의 섬 제주 그리고 중국과 일본의 설화를 경이로운 SF 세계관으로 새롭게 쓴 앤솔로지입니다. 수 천년의 시간 동안 축적되고 변형되며 살아남은 옛 이야기들은 작가들의 상상을 통해 시공간을 넘나든다. 같이 고대의 설화에서 미래의 SF로 떠나 보시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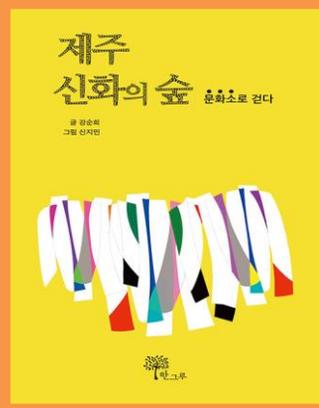
흥선권역 공립 작은도서관 2월 사서컬렉션

흥선동 작은도서관

사서 양운정

이 달의 주제도서

소장도서관 : 녹양동 작은도서관



제주 신화의 꿈

강순희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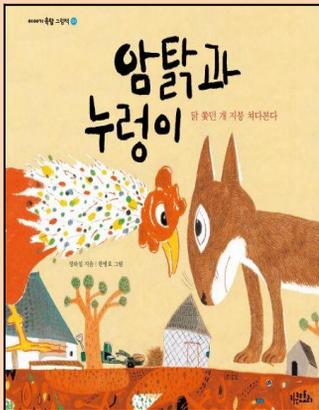
한그루

2022

청구기호

AD 219.11-7249x

같은 땅에 있어도 말이 다른데 하물며 바다를 두고 떨어진 섬은 또 얼마나 다를까요. 관광지로는 친숙한 제주도의, 제주도만의 신화에 대한 도서입니다. 제주도의 문화와 신화의 설명으로 다소 낯선 이야기를 받아들일 수 있게 차분한 문장에 일상을 곁들여 전달합니다. 우리도 잘 몰랐던 우리의 신화를 접할 수 있는 도서입니다.



암탉과 누렁이

정하섭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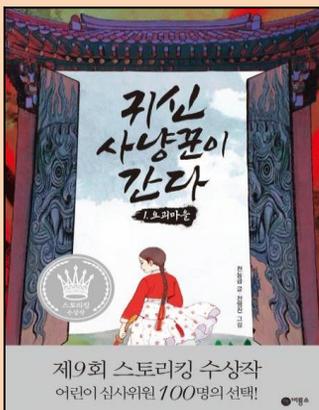
키큰도토리

2015

청구기호

JJ 388.6-75180-v.1

속담 “닭 쫓던 개 지붕 쳐다보듯”은 어떻게 해서 만들어졌을까요? 우리가 흔히 듣던 속담에 상상력을 더해 전래 동화처럼 재창조한 이야기를 담았습니다.



귀신 사냥꾼이 간다

천능금 지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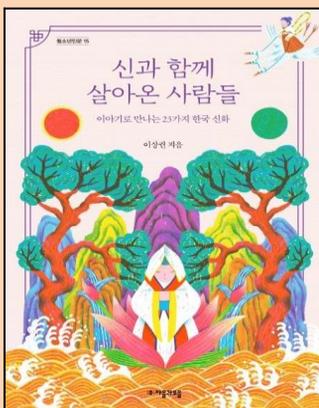
비룡소

2021

청구기호

J 813.8-72427-v.1

우리 전통의 요괴 서사 모티프를 활용한 호러 판타지로 귀신 사냥꾼 해주와 귀신 보는 아이 태주, 그리고 다섯 요괴 차사들이 펼치는 스릴 만점의 귀신 잡는 이야기. 귀물을 모아놓은 요괴 박물관을 중심으로 벌어지는 사건들과 이 사건들을 추격해 가는 귀신 사냥단의 활약은 독자들의 간담을 서늘하게 하는 공포 스릴러이면서 동시에 박진감 넘치는 통쾌한 히어로물이다.



신과 함께 살아온 사람들

이상권 지음

자음과모음

2020

청구기호

AD 219.11-0748x

우리 조상들이 믿고 의지해 온 신들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는 인문서. 23가지 한국 신화가 소개되어 있는데, 각 이야기에 등장하는 신들의 의미와 역할에 따라 다섯 가지 주제로 묶어 구성했다.